

문학 작품 속에 비친 제주인의 삶과 환경*

金 永 和**

I.

문학 작품에 제주인의 삶과 환경이 묘사되는 일은 흔해졌다. 제주와 관련이 있는 作家들의 작품에도 描寫되어 있고, 제주와 관련이 없는 作家들의 작품에도 묘사되어 있다.

제주와 관련이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 제주인의 삶과 환경이 그려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와 관련이 없는 작가들의 작품 속에 그것이 묘사되어 있다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황순원 씨의 「비바리」, 오영수 씨의 「後日譚」, 「실걸이꽃」 등은 이 작품을 쓴 작가들이 제주와 관련이 없는데도 그들의 작품 속에 제주인의 삶이 그려져 있다. 그들은 제주에 여행을 왔다 간 후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던 것이다. 이 작품들에는 外地人이 본 제주인의 삶과 그런 삶을 둘러싼 환경이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에는 제주인의 삶과 환경이 피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 본 논문은 「濟州의 人文환경과 自然환경」이라는 주제로 열린 濟州島研究會 제8차 전국 학술대회(호텔 제주로얄, 1992년 11월 27일~28일)에서 발표된 것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 濟州島研究 9輯(1992)

잠깐 스치고 지나가면서 받은 印象이나 風聞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에 묘사된 제주인의 삶과 환경은 리얼리티가 부족하다.

제주와 관련이 깊은 작가들, 이를테면 제주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는 제주인의 삶이나 환경이 비교적 리얼하게 描寫돼 있다. 그런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몇 작품을 골라 그것을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II.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제주인의 삶과 환경을 그려낸 소설에 吳成贊 씨의 「돌하르방」(1975)과 「숙 清白吏傳」(1975), 玄基榮 씨의 「소드방놀이」(1976) 등이 있다. 먼저 吳成贊 씨의 「돌하르방」을 살펴 본다.

늦봄부터 여름 한철은 목이 타게 가물었다.

비는 몇 번 흠뻑렸으나 겨우 먼지나 재웠을 뿐 끝내 해갈을 시켜 주지 않고 감질만 냈다.

좁새 한 톨 고구마 한 뿌리 심어 보지 못하고 여름을 보냈다. (중략)

거기다 여름이 숙어지면서 괴질이 돌아 사람들을 몰살하기 시작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식은 땀이 한량없이 솟고 며칠째 하품을 하며 고통의 고비가 오면 창자를 쥐어 뜯다가는 맥없이 죽어 갔다. (중략)

그러나 관가는 이같은 병에 전혀 무방비였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병든 사람과 접촉하면 병이 옮는다 해서 되도록 병 오른 사람의 집은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목사는 영을 내려 괴질을 앓는 사람이 있는 집 아래에 가시를 치게 했다. (중략)

거기다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쌀도 잡곡도 다 떨어지자 이번에는 툇과 무릇, 썩, 들나무들로 연명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먹으니 부황이 나서 얼굴들이 부었다. (중략)

관가에는 녹을 주려고 거둬들인 곡식이 가득 있었으나 이를 풀어 백성을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략) 왜구의 침입은 금년 들어 부쩍 그 횡수가 불어나서 군소 유인도(有人島) 사람들이 못살겠다는 아우성이지만 이제는 본도에까지 노략질이 미치기 시작했다.

이 소설에는 조선 시대의 제주인들의 삶과 환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첫째 기근, 둘째 질병, 세째 왜구의 잦은 침입이다. 이럴 경우 제주인들은 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관에서는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곡식을 쌓아 놓고서도 그들을 구제하지 않고 있다. 질병에 대한 대책도 소극적이다. 왜구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도 무기력하다. '관덕정 의자에 앉아서 대청마루나 구르라면 명명 잘 굴렀지, 노략질이나 하라면 빈틈없이 해냈지, 앞서 나가 그들(왜구=인용자)과 싸는 데는 언제나 게처럼 옆걸음이었다'고 이 소설에는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인들은 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放置되어 있다. 일종의 버려진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이다.

饑饉이 어느 정도인지 이 소설에는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 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소설은 玄基榮 씨의 「소드방놀이」이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야산을 해매고 다녔다. 경칩이 겨우 엇그제 지낸 초봄이라 산나물은커녕 들나물도 안 나올 때였다. 그들은 칩뿌리, 잔대뿌리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십년생 아래쪽 어린 소나무들은 껍질이 허영게 벗겨져 죽어갔다. (중략)

이때를 당하여 사또가 기껏 한다는 일은 향청(鄉廳)의 유생에게 의뢰하여 먹을 수 있는 구황(救荒)식물 수십종을 방을 붙여 알리는 일과, 술과 떡 빛는 행위를 엄금하는 것 뿐이었다. 그건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어디 풀 이름을 몰라서 사람들이 매양 굶기를 밥먹듯 하고 있던 말인가. 소루쟁이, 냉이, 고들빼기, 조릿대, 원추리, 고사리, 둥글레…… 어디 이름 몰라서 못 캐먹는가, 게을러서 굶는가. 송덕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말랑말랑한 진흙으로 흙떡을 빚어 먹는다는데, 그 사람들은 산나물 들나물 죽이 좋

은 줄 몰라 토식(土食)하고 있던 말인가. (중략)

사태가 이러한데 술, 떡을 해먹지 말고 양식을 아끼라니. 어린것들이 밥을 너무 쳐먹어서 저렇게 배부른가. 종아리, 팔은 밴대이처럼 뻐뻐 말랐는데 어이없게도 배만 볼록 솟아오른 아이들. 모두가 잔대뿌리나 칠푼뿌리, 나무껍질 따위 거친 음식 때문이었다.

제주의 정의 고을이 배경인 이 소설에서도 사또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는 還穀米를 부정 처분해서 착복하고 있다. 그 점에서는 「돌하르방」에 나오는 관리와 마찬가지로다.

이 두 소설의 공통점은 제주인들이 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성찬 씨의 다른 소설들인 「속 清白吏傳」, 「戀北亭」 등에 나오는 官吏들도 제주인들로부터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선 시대의 제주인들은 굶주림, 질병, 왜구의 잦은 침입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제주에만 있었던 일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반도의 어느 곳에서나 있었던 일들이다. 다르다면 조정과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점에서 관리들의 횡포가 심했다는 점,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왜구의 잦은 침입에 시달렸다는 점이 다른 환경일 것이다.

Ⅲ.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대한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 玄基榮 씨의 「변방에 우짖는 새」(1983)가 있다. 이 소설에 제주인의 삶과 환경을 짐작케 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더 괴로운 것은 나라에 진상하는 토산물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물론 나라 진상은 백성된 도리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막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진상 수가 정식대로만 지켜진다면 오죽 좋으랴만, 나라에서 열을 징구하면 스물, 서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진상물이었다. (중략) 진상물

별미잡아 위로는 사또 영감부터 저 아래 육방관속에 이르기까지 토색질을 일삼았으니, 섬 백성들은 허구헌날 굶힌 허리를 펼 겨를이 없었다. 중산촌에서는 말을 키워 공마하고, 글을 가꾸 글 진상하고, 진시황이 이 섬에서 찾다 못 찾은 불로초 외에 향심, 향부자, 안식향 따위 갖은 약재를 다 구해야 할 뿐더러 백랍, 표고버섯, 돛자리, 말총갓, 노루 사슴의 육포에다 별미라는 사슴 헛바닥과 꼬리까지 공헌해야 했다. (중략)

해촌의 포작 진상은 수량이 월등히 많아 포작인(어부)들은 일 년 열두 달 바닷속 열명길을 들락날락 자맥질하여야 했다. 노적가리만큼 큼직큼직한 진상꾸러미를 만들어 전복, 미역, 청각, 우뚝가사리, 산호, 대모 외에 해중 귀물인 진주와 앵무조개 진상은 나중에 면제되었지만 그 대신 전복의 수량이 엄청 늘어났으니 포작인의 고역은 말이 아니었다. 남정네 근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마누라와 딸자식까지 벌거벗겨 물질을 시키건만, 걸핏하면 물량을 채우지 못하였다 하여 옥살이를 하고 불기맛기를 선달 그믐날 흰떡 맞듯 하였다.

이 인용문에 나타난 상황이 대한제국 시대에만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소설의 문맥으로 보면 이전(조선시대)부터 행해졌던 일이라고 해석된다. 제주인은 전부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다는 뜻이다.

사또에서부터 육방 관속에 이르기까지 토색질을 일삼는 관리들에게 시달리는 제주인의 삶이 어떤 樣相이었는데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인 만큼 다소 과장된 느낌도 없지 않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소설이 아니더라도 제주인들 사이에는 傳說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本土에서도 관리들의 횡포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제주에서처럼 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관리들의 횡포와 토색질은 중앙정부인 朝廷과의 거리와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絶海孤島인 섬에서 일어나는 횡포와 토색질이 朝廷에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관리들 가운데는 제주인도 없지 않았으나 고급 관리일수록 外地인들이

많았다. 따라서 가혹한 徵稅와 토색질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제주인들이 官과 外地人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 나아가 反抗은 방성칠난, 이재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 소설은 관에 대한 반항과 함께 외지인과 外勢에 대한 반항도 드러난다. 특히 카톨릭 세력에 대한 반항이 그려져 이채롭다. 카톨릭 세력에 대한 반항은 신자들 가운데 관리들의 주구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카톨릭 세력에 대한 반대로 나타난다. 그것은 제주민이 지닌 샤머니즘적, 유교적 세계와의 충돌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크게 보면 외지인과 외세에 대한 반항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여기서 제주인의 의식 가운데 독립과 分離에 대한 숨은 소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IV.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제주인의 삶과 환경을 그린 소설에 玄基榮씨의 「바람타는 섬」(1989)이 있다. 이 소설은 1930년대 초에 있었던 구좌읍 세화리와 하도리 잠녀들의 투쟁을 形象化한 작품이다.

이 소설에는 제주 잠녀들의 작업 광경, 그들의 애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삶을 형상화해 놓고 있다. 추운 계절에도 바다에 들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워 춘궁기에는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생활상이 드러난다.

생활이 곤궁해진 제주 사람들이 일본의 대판 등 돈을 벌기 위해 유랑하는 상황이라든가 잠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한반도 본토는 물론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블라디보스톡까지, 서로는 여순, 대련까지, 그리고 일본의 대마도, 동경만 등지까지 出稼하고 있는 상황이 묘사돼 있다. 그 때마다 어린 젖먹이나 가족들을 뒤로 하고 떠나야 했고, 힘들여 채취한 해산물은 中間商人들의 농간이나 관계 업자들의 수탈에 희생당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런 수탈이 계속되자 견디다 못한 잠녀들이 이에 반항한다.

마을 잠녀들은 이를 동안의 집중적인 채취작업으로 거둬들인 미역을 나흘 동안 햇볕에 착실히 말려서 조합 공판장에 내다 팔았다.

시중은 말로만 듣던 잠녀 수탈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공판장에 나가보고 실감했다. 위탁판매를 맡은 조합은 이번에도 경매에 붙이지 않고 조합장인 도사가 지정한 특정 왜 상인들에게 헐값에 팔아 버렸는데, 그 돈에 붙은 값은 무명 잡새, 조합 수수료가 엄청나고 조합 서기들의 농간 또한 극심했으니 (중략) 잠녀의 채취물 중 9할 이상이 수탈당했다.

조합 서기들은 왜놈이건 조선놈이건 간에 모두 왜 상인들과 한통속이 되어 정해진 값도 안 주려고 멀쩡한 물품을 상중하로 등급 매겨 낮게 치는가 하면 저희들 맘대로 저울눈을 속여 먹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요, 얇은배이 터차는 식의 무지막지한 강도질이었다.

그러나 저놈들이 칼든 도적떼인 바에야 불평인들 한마디 제대로 입밖엔 낼 수 있겠는가. 모두들 속으로만 드글드글 끓일 뿐 속수무책이었다. 두 팔이 있어도 막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외치지 못하고, 그저 무심한 하늘만 쳐다보고 웅얼거릴 뿐이었다.

이 인용문은 잠녀들과 조합 간부들과의 갈등을 보인 대목이다. 해녀조합을 만들어 잠녀들을 수탈하고 있는 조합간부들과 日本 商人들의 행태가 드러난다. 조합장은 島司인 일본인이다. 그 밑에서 일하는 書記 등은 일본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었다. 그들은 잠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마땅히 경매에 붙여 조금이라도 좋은 값에 팔도록 도와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도사는 일본 상인과 결탁하여 특정 상인에게 헐값에 팔아 버리고 있다. 교묘한 수탈이다. 게다가 불필요한 비용까지 잠녀들에게 부과시키고, 심지어는 저울눈까지 속이고 있다. 이 소설 도처에 잠녀들이 글을 몰라 속임을 당하는 일을 한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몰라서 속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시의 잠녀들이 처한 상황이고 제주인이 처한 상황이기도 했다.

여기서 보듯 수탈을 하는 쪽은 관리들—곧 外地人이거나 日本人이고, 수탈당하는 쪽은 제주인이다.

일제 때 제주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등지로 유랑을 떠났다. 고향에서 더 이상 가난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섬이라는 자연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점도 있으나, 수탈의 대상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고향을 등지고 대판등지의 공사판에서 고생을 하며 노동을 했던 이야기는 이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처참한 것이다. 그런 처참한 제주인의 모습을 작품으로 그런 소설은 아직 본 일이 없다. 그러나 在日作家인 金鶴泳의 소설 「흙의 슬픔」 등을 읽으면 재일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이 잘 그려져 있다. 그런 조선인들 가운데 제주인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V.

해방 후 4·3사건 전후에 제주인들이 많은 수난을 당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제주인들끼리 좌·우로 나누어 싸웠기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현기영 씨의 소설 「잃어버린 시절」(1983)에 ‘쌀 배급을 달라’, ‘친일파를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제주인들이 시위를 했다고 서술돼 있다. 여기에 제주인의 생각이 함축돼 있다. 빈궁의 문제는 제주인의 중요한 문제다. 제주인의 의식의 깊은 곳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절실했다. 해방 후의 혼란기에는 쌀이 부족해서 제주인들은 굶주려야 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서는 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意思도 없었던 것 같다. 게다가 관리들이라는 게 일제 때의 관리나 경찰들이 다시 옷만 갈아 입고 나타나 제주인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당연히 제주인들은 관과 관리들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갖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관리나 경찰은 우익의 입장을 두둔하고 좌익을 타도하는 데 앞장 선다. 이태올로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농·어민들은 관리나 경찰이 미워서 左偏向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관리들 가운데는 外地人도 많았고 후에 제주에 파견된 西北靑年들은 집단적인 외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의 상황은 金石範 씨의 「火山島」(한국어

판, 1988)에 다음과 같이 서술돼 있다.

서청의 줄개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필요도 없는 물건을 터무니 없는 값으로 떠맡기고는, 뿔뿔한 기색을 보이면 ‘빨갱이’라고 트집을 잡곤 했다. 최근에도 썩은 달걀을 시중 가격의 몇 배나 되는 값으로 식당에 팔아 먹으려다가 식당 주인 노파가 끝내 거절하자 발길질을 하여 쓰러뜨리고는 소쿠리에 든 달걀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진 달걀값을 변상시킨 사건도 있었다. 당국에 호소해도 서청이 경찰을 지배하여 한통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 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의식이 강한 제주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西靑에 대한 증오요, 경찰에 대한 불신이다. 관에 대한 불신과 반항이 결과적으로 좌편향하게 되고 그것이 비극을 심화시켰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4·3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상당수 제주인들은 좌·우의 갈등 속에 안팎급사등이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4·3사건을 소설화한 대부분의 작품에 드러난다.

(A) 밤에는 부락 출신 공비들이 나타나 입산하지 않는 자는 반동이라고 대창으로 찢어 죽이고, 낮에는 함덕리의 순경들이 스리쿼터를 타고 와 도피자 검속을 하니, 결국 마을 남정네들은 낮이나 밤이나 숨고 지낼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순경들이 도피자라고 찾던 폐병장이 종철이 형은 공비가 습격해 온 밤에 깨 뒤에 숨어 있다가 기침을 몹시 하는 바람에 발각되어 대창에 찢려 죽었고, 헛간 멍석 세워둔 틈에 있다가 역시 공비의 대창 맞고 죽은 완식이 아버지도 순경들이 찾던 도피자였다.

(B) 난리통에 이 깃대에는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붉은기가 교대하며 걸러 풀려있었다. 낮에 태극기를 걸었다 내리면 밤에 누가 걸어 놓은 것인지 새벽이면 섬뿔한 붉은깃발이 유령의 옷깃처럼 걸려서 나부끼고 있곤 했다.

사람들은 그 깃발이 무서워서 먼 길을 돌아다니고, 기를 바꾸어 가는 실랑이는 상당기간 집요하게 되풀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은 끝내 이 동네에서 큰 불행을 불러들였다.

깃대가 바로 코 앞인 판매집의 버버리(반방어리) 현씨가 저녁 때는 산 꼭대들에게 얻어맞고, 새벽이면 토벌대들에게 얻어터지다 결국은 다리와 팔이 부러진 병신이 돼 버렸다.

(A)는 玄基榮 씨의 「順伊 삼춘」(1978), (B)는 吳成贊 씨의 「사포에서」(1982)에서 인용한 것이다.

4·3사건 당시 대다수 제주인들이 처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순이 삼춘」의 '종철이', 「사포에서」의 '현씨' 등은 4·3 당시의 평범한 제주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좌파 모험주의자들과 경찰 또는 軍 사이에서 희생된 제주인들이다.

좌·우의 갈등 속에 선량한 민중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은 분단상황을 다룬 소설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제주인들도 좌·우의 갈등 속에 수난을 거듭하고 있음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玄吉彦 씨, 高時洪 씨 등의 작품에도 있다.

VI.

4·3사건은 4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4·3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4·3사건은 역사의 한 단계이고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玄吉彦 씨의 「먼 훗날」(1984)과 「身熱」(1984), 高時洪 씨의 「戒命의 도시」(1991) 등은 4·3사건 후 3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건과 관련된 상황이 지속되어 제주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먼 훗날」의 주인공 '강상준'은 40대의 교수다.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9촌 아저씨되는 '강경민'을 만났다. 강경민은 4·3사건 때 좌익활동을 하다가 위

기에 물리자 일본으로 탈출한 사람이다. 그 때문에 가족들은 폭도 유가족으로 몰려 희생되었다. 4·3사건의 와중에 살아 남은 조카인 강덕재는 그런 삼촌이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족보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다.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강상준 교수는 일본에서 강경민을 만나게 되었고, 그 때 강상준 교수에게 조카인 덕재에게 전해달라면서 일화 오만엔을 준다. 제사를 지낼 때 보태 쓰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강상준 교수에게도 이만엔을 용돈으로 준다.

강 교수는 귀국 후 강덕재를 찾아가 강경민이 전한 돈을 건네려 한다. 그 때 강덕재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 돈을 받았다가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는 강덕재로서는 좌익 활동을 했던 삼촌이 있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제서야 강상준도 가볍게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진다. 혹시 그 돈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했다. 그래서 돈을 봉투에 넣고 보관해 둔다.

이 속에는 두개의 봉투가 있다. 그 봉투 속에는 각각 일화 오만엔과 이만엔이 들어있는데, 이는 내가 일본에 건너 갔을 때 구촌 아저씨께 건네 받은 것이다. 오만엔은 그 분의 조카인 강덕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인데 본인이 받기를 거절하였고, 다른 이만엔은 내게 인사로 준 것이나, 생각을 하니 내가 그분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그 돈들을 다시 그를 만나게 될 때 되돌려 주려고 이렇게 봉하여 두는 것임.

1983년 10월 17일 강상준

이 소설에서 강덕재의 태도가 흥미있다. 삼촌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처리를 족보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적인 문제는 호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사망했다는 사실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호적은 그런 증명이 없어도 된다. 아울러 가족

에게 희생을 시킨 인물이니 가족에서 제외시킨다는 뜻도 함축돼 있다. 피해 의식과 피해망상, 그리고 분별없이(?) 날뛴 삼촌에 대한 증오의 표현이다.

다음은 강상준 교수의 태도다. 처음에 돈을 받을 때는 가볍게 생각했다가 강덕재와 만나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가 새삼스럽게 현실의 벽을 깨닫게 된 것이다. 혹시 그것 때문에 성가신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돈을 쓰지 않고 보관해 둬으로써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4·3사건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오늘도 제주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신열」은 아직도 4·3사건 때 있었던 일들이 사실 그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거짓된 풍문을 사실로 믿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 벽이 두터워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4·3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그것을 밝히려 드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최 부장의 좌절이 그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제주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戒命의 도시」에 나오는 양한구 편집국장도 4·3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있다.

이처럼 4·3사건은 40여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제주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VII.

소설은 虛構다. 위에서 살핀 소설들의 내용이 사실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런 작품들을 쓴 작가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점 事實이나 歷史와 다르다.

그러나 이 소설들의 내용과 필자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그만큼 이런 내용들은 濟州人들 사이에는 널리 流布된

것들이다. 따라서 虛構이면서도 事實에 가까운 것이 이 소설들의 내용이 아닌가 한다.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 필자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官(權力)과 濟州人 사이에 언제나 긴장과 대립, 나아가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官은 제주인을 수탈하거나 억압하는 기관이고, 관리들 가운데 상당수가 外地人이었다는 점을 想起한다면 官과 濟州人의 대립과 갈등이 外地人과 濟州人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